‘하늘길서 에어택시 붕붕’… 현대차는 이미 ‘미래도시’

>> 1면 ‘정의선, 현대차 본사에’서 계속

UAM·PBV·Hub 축소 모형물로
미래 이동성개념 알기 쉽게 표현
‘우버 협업’ UAM, 실현의지 보여

UAM은 개인용 비행체(PAV)를 기반으로 하늘을 이동 통로로 이용하는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수직 이착륙하는 PAV로 활주로 없이 도심에서 비행해 대도시 교통 혼잡을 피하는 방안이다.

Hub는 UAM 이·착륙장과 PBV 도킹 스테이션을 갖춰 이들을 연결하는 구심점이면서, PBV와의 결합에 따라 새로운 공간으로 무한히 재창조되는 개념이다.

이번 전시에서 107㎡ 공간에 실물을 1대 8 비율로 축소한 크기로 놓인 모형은 UAM과 PBV, 허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현대차의 미래 이동성 개념을 알기 쉽게 표현했다. 허브 위에 설치된 이·착륙장에는 하늘을 나는 UAM이 있고, 지상에는 7가지 개인 용도로 제작된 PBV가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현대차 본사 1층 로비에 설치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UAM, PBV, Hub의 축소 모형물.

PBV 모형은 실제로 허브 주변을 돌다가 허브의 도킹 스테이션에 연결돼 건물의 일부가 되는 모습을 연출했다.

UAM은 8개의 프로펠러가 이·착륙 시에는 수직으로, 전진 시에는 수평으로 전환되는 ‘틸팅’(tilting) 기능을 선보이며 생동감 있는 비행 상황을 보여준다. 천장에는 거울을 설치해 다양한 각도에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고, 벽면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미래 모빌리티가 실현될 미래 도시의 영상도 상영한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

전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지며 이후에는 글로벌 행사 등에 출품해 현대차 미래 비전을 알리는 데 활용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항공연구총괄본부장 출신인 신재원 현대차 UAM 사업부 부사장은 “현대차그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꿈이던 도심항공모빌리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UAM 사업부를 신설했다”며 “이번에 전시한 UAM 기체는 우버와 협업한 것으로 UAM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상엽 현대디자인담당 전무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개인 모빌리티라는 디자인영역 연구를 위해 UAM 디자인 조직을 신설하고 부서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T, 빌게이츠 재단과 ‘제2코로나’ 막는다

게이츠재단 3년간 120억 투자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 활용
감염병 대비 방역연구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과 대응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에 적극 나서는 기업도 있다.

17일 KT는 빌&멜린다 게이츠재단의 투자를 받아 3년간 120억원 규모의 ‘감염병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KT AI/빅데이터서비스담당 변형균 상무(왼쪽 첫 번째)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혁신기술 솔루션 담당 이사 댄 와튼도프(화면 속) 등 관계자들이 ICT 기반 감염병 대응 연구를 위한 화상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KT

KT를 포함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자사 로밍 빅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 예방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2017년 3월부터 방문국가나 출입국 시점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질본)가 해외의 감염병 오염지역 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제공하면, 이통사는 가입자의 로밍 빅데이터를 확인해 오염지역을 방문한 이용자의 정보를 질본에 제공하는 식이다.

이 서비스는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와 이통사는 조류독감 등 동물 감염병 확산 방지를 통해 그간 축적한 역량을 인간의 감염병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안해 서비스를 적용했다.

이후 KT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협력을 위해 글로벌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GEPP)을 개발해 국제기구 및 단체와 공조하고 있다.

이번 연구로 KT는 ‘인공지능 기반 감염병 조기진단 알고리즘’과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경로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 게이츠 재단은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50%를 펀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KT와 게이츠 재단의 인연은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 ‘데이터혁신 워킹그룹’에서 이뤄졌다. 이듬해 KT는 글로벌헬스 연구기금인 ‘라이트펀드’ 주최 ‘ICT포럼’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GEPP)’ 등 ICT 기반 감염병 확산 방지 활동을 발표했는데,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게이트 재단 관계자가 관심을 보여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게이츠 재단은 정보통신기술과 함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예를 들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은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도구로 쓰이고, 정보통신 인프라는 재택근무·온라인 개학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됐다.

우선 KT는 첫 번째 과제로 모바일 닥터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독감 유사 증상을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앱은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해 측정된 이용자의 체온, 독감 증상 등을 저장한다. 이후 앱에 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독감 가능성을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완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KT는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구 이동 이력과 독감 유전체 검사 데이터, 독감 유행지역을 분석해 독감 확산 경로를 규명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지역별 독감 발생추이를 분석하고 지역별 독감 시즌 예측 모델도 개발한다.

KT는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해 고려대학교의료원 김우주 교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모바일 닥터, 메디블록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회사 측은 “게이츠 재단과 진행하는 이번 연구가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로 개발된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감염병 유행 이전에 위험을 미리 알려 감염병을 조기진단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K-방역’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에 따르면 방역·예방 효율화를 위해 AI, 빅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을 예측하고, 핵심 방역장비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적극적인 검사와 확진, 조사와 추적, 격리와 치료 등으로 이어지는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게이츠 재단 앤드루 트리스터 디지털보건혁신국 부국장은 “빅데이터 분석과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질병의 이동 및 확산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면 시간을 절약하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KT의 연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험에 처한 다른 국가들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U+아이돌라이브서 ‘랜선음악여행’ 생중계

LGU+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 시청

LG유플러스는 오마이걸, 김재환, 아이콘, 에이프릴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무관중 온라인 공연으로 개최되는 ‘랜선음악여행-트립투케이팝’을 U+아이돌라이브에서 생중계한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 ‘랜선음악여행-트립투케이팝’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3일간 서울 중구 청계천로 CKL스테이지에서 매일 저녁 7시부터 80분간 진행된다. 19일 ▲아이콘 ▲소란 ▲비비 ▲나띠를 시작으로 20일에는 ▲김재환 ▲에이프릴 ▲데이브레이크 ▲홍이삭, 21일에는 ▲오마이걸 ▲바밍타이거 ▲서사무엘 ▲마틴스미스 ▲카드 등 국내 뮤지션 13개 팀이 참여한다.

‘랜선음악여행-트립투케이팝’ 전체 공연은 U+아이돌라이브를 통해 모바일 생중계 된다. 생중계 이후에는 주문형비디오(VOD)로 무료 시청이 가능하다. U+아이돌라이브는 이용 중인 통신사 관계없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또 U+아이돌라이브 ‘랜선음악여행-트립투케이팝’ 생중계 시 ‘실시간 채팅’ 기능으로 아티스트와 팬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U+아이돌라이브에서 생중계 중 응원하는 아티스트에 투표를 하고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공연 중 아티스트가 U+아이돌라이브에 팬이 남긴 응원 메시지를 확인하며 직접 읽는 ‘랜선 덕질’ 이벤트도 연다. /김나인 기자

LG전자, 실외기 필요없는 ‘이동식 에어컨’

LG전자도 ‘언택트’ 시대를 위한 ‘셀프 설치’ 에어컨을 국내에 출시했다.

LG전자가 29일 ‘LG 이동식 에어컨’을 본격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19일부터 28일까지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이동식 에어컨은 집안의 원하는 곳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고, 설치 부담이 없어 이사도 편리하다. 실외기 설치가 어려운 공간에서도 쓸 수 있다.

신제품은 냉매를 압축하는 실린더가 2개인 듀얼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했다. 한 번에 더 많은 냉매를 압축해 냉방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높여 기존 정속형 모델(LW-C062PEW)보다 하루 4시간 사용기준 에너지를 최대 29% 절약할 수 있다.

냉방면적은 26㎡다. 냉방뿐 아니라 송풍과 제습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바람세기 약풍에서 정음모드를 사용할 경우 소음이 42dB(데시벨)에 불과하다.

LG전자 포터블 에어컨. /LG전자

한국 창틀을 고려한 간편설치 키트도 기본 제공한다. 고객이 직접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공간 창문을 열어 설치키트를 체결하고 배관을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

IoT 기능도 있다. 와이파이를 탑재한 모델은 LG 씽큐와 구글 어시스턴트, 네이버 클로바 등과 원격 연결돼 스마트폰으로 제품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리모컨도 기본 제공된다. 가격은 와이파이 탑재 모델이 74만9000원, 일반 모델이 69만9000원이다. /김재웅 기자 juk@